



광주MBC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 제작발표회에서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현PD, 정세혁 작가, 박지원 PD, 배우 정준·안석환·반민정·김사희·지대한·조유신씨.

“극장 사수 고군분투 그린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

광주MBC 4부작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 제작발표회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은 삶에 지친 극장 사람들이 가족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또 오래된 극장을 배경으로 살아 전극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파라다이스 극장’은 광주MBC가 기획하고 (주)우진아이엔피, (주)파니브라운이 공동 제작하는 코믹장르 4부작 드라마다. 대기업 등장으로 대형화된 극장 사이에서 오래된 극장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코미디극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영화제작에 뛰어들어 극장 가족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광주 율로케이션 촬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양림동에서 첫 촬영을 시작으로 광주극장 등 곳곳을 누비며 친숙한 배경들을 만날 수 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정성현, 박지원 PD를 비롯해 정세혁 작가, 배우 안석환, 정준, 반민정, 김사희, 조유신, 지대한 등이 참석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영화 ‘양림동’을 제작하기도 했던 정 PD는 “옛 영화자료들이 있는 ‘광주극장’은 어릴 시절 극장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꼭 드라마 소재로 삼고 싶었

양림동·사직공원서 촬영

안석환·정애리 등 출연

내달 11일부터 매주 토 방영

다”며 “전국 유일 단관극장이라는 고집이 있는 ‘광주극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코믹극답게 제작발표회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극장 주인 구경서 역을 맡은 안석환은 “올해는 광주와 인연이 많은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오는 4월 연극 ‘백 베스411’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광주에 머물며 작업 중이다.

안씨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 숙식하던 중 출연 제의를 받아 ‘잘됐구나’ 싶었다”며 “좋아하는 광주에서 촬영하는 만큼 가장으로서 식구 챙기고 극장도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구석기를 연기하는 정준은 제작발표회 내내 안석환을 아버지라 불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버지(안석환)와는 영화 ‘하면 된다’에 같이 출연하며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 드라마 촬영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 새벽 2시에 작가에게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며 “광주 율로케이션 촬영이라고 해 경기도인 줄 알았는데 전라도였다. 이번이 광주 첫 방문이다. 맛있는 음식으로 상추튀김을 추천받고 꼭 먹어보겠다”고 웃었다.

조유신이 연기하는 오종세는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는 인물이다. 마치 ‘광주극장 간판쟁이’ 박태규씨가 떠오른다. 조씨는 “어수룩하고 동네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오종세는 인생이 녹록지만은 않다”며 “소소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힘겹게 전진하는 모습을 눈여겨봐주시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건달이나 형사 등 거친 모습을 주로 보였던 배우 지대한 씨는 “극중 전과가 100범을 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지씨는 “감독이 이미지 변신을 시켜주겠다고 설의를 했는데 막상 대본을 봐보니 예로영화 감독이었다”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눈빛연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정세혁 작가는 “현재 대본을 집필 중인데 가족이야기지만 러브라인을 넣어 풍성한 플롯을 만들어보겠다”며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월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40분(60분 분량) 방영.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광주 출신 이매리 작가

내달 18일까지 뉴욕 초대전

회화·영상·설치작품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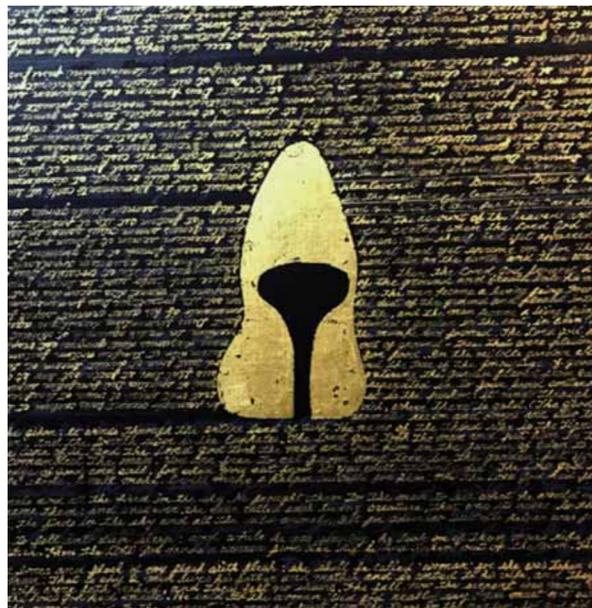
매년 3월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아모리쇼(The Armory Show)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현대미술박람회다.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 등 대가들이 아모리쇼를 통해 미국에서 주목을 받으며 미술 중심이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진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광주 출신 이매리 작가가 아모리쇼 시즌에 맞춰 뉴욕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23일부터 3월18일까지 열거위머 PCC에서 ‘MaeleeLee: The Next Step’을 주제로 회화, 영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뉴욕 첼시와 유립에서 갤러리를 운영한 베테랑 여성 갤러리스트 엘가 위머의 초대를 받았다. 엘가 위머는 이 작가가 작업하는 여성과 인류사적인 질문에 주목했다.

이 작가는 ‘인간의 삶과 죽음, 각 나라와 민족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인류학적, 문명사적 현상을 작가 개인적 시선으로 표현한 신작 30여점을 발표한다.

작품들은 ‘인간과 삶과 죽음 그리고 진화’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이 작가를 대표하는 소재인 하이힐을 캔버스에 그리고 금가루를 입힌 작품 ‘Genesis’ 등을 출품한다. 캔버스 중앙을 향한 하이힐은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관람객들



‘Genesis’

을 성찰하게 만든다.

이 작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현대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가치 혼란에 빠져 자칫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전시다”며 “지난 2010년 뉴욕에서 초대전 ‘MELLANGE’를 연 이후 7년만에 가진 전시로, 개인적으

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 작가는 이이남 작가와 함께 지역 최초로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하며 주목 받았다. 지난해 중국 충칭, 시안, 상하이 등에서 순회전을 갖는 등 국내 뿐 아니라 뉴욕, 베이징, 그리스 등 전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을 수강생 모집

4개반 105명 내달 5일까지 등록 마감

흔히 산골 시골마을을 일컫어 ‘생오지’라고 한다. 오지 중의 오지라는 뜻이다. 담양에 ‘생오지’라는 곳이 있다. 담양 생오지마을에는 문순태 작가가 거주한다. 생오지는 그의 고향이자 오늘날 그의 문학을 잉태한 ‘문화적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은 2006년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직을 퇴임한 작가 문순태(사진)가 작품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동지를 튼 곳이다. 고향을 떠난지 56년 만에 고향 생오지로 돌아와 전 재산을 털어 문학의 집을 마련했다. 재단법인 전환 후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강좌가 개설된 것은 지난 2013년 3월이었다. 시 창작반, 수필 창작반, 소설 창작반, 소설 창작연구반으로 나눠 100여 명이 넘게 등록해 수업을 받았다. 지금까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많은 문인들이 문예창작대학을 거쳐 창작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담양에 ‘생오지’라는 곳이 있다. 담양 생오지마을에는 문순태 작가가 거주한다. 생오지는 그의 고향이자 오늘날 그의 문학을 잉태한 ‘문화적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은 2006년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직을 퇴임한 작가 문순태(사진)가 작품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동지를 튼 곳이다. 고향을 떠난지 56년 만에 고향 생오지로 돌아와 전 재산을 털어 문학의 집을 마련했다. 재단법인 전환 후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강좌가 개설된 것은 지난 2013년 3월이었다. 시 창작반, 수필 창작반, 소설 창작반, 소설 창작연구반으로 나눠 100여 명이 넘게 등록해 수업을 받았다. 지금까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많은 문인들이 문예창작대학을 거쳐 창작활동



올해 모집 부분은 시창작반(30명), 소설창작반(30명), 소설등단반(15명), 기초 글쓰기반(30명)이며 등록마감은 3월 5일이다.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소설등단반을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12시)에 수업이 진행된다. 강의 장소는 광주 남구 광주문화재단이며 소설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jyic910106@naver.com)로 접수, 심사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10-2441-4830. /박성천기자 skypark@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약 46 M
- ▶ 개관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에능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062-220-0550
팩 스: 062-222-0195

특집

탐욕이 울바름의 덕목 혼드는 시대

宗家를 다시 본다

-뿌리의 정신 있고 사람의 도리 실행하는 고결한 가계
-장흥 고씨 의열공파 14대 종손 고영준씨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가 노중부 황주남, 소중부 박치임씨
-하회마을 풍산 류씨 입암고택과 충효당

문화 첫보기

‘월계수 양복점’ 못지않은 자긍심 불함 속가업 잇는 이들

소문난 예술교육연장을 찾아서 ③

예술적 온고지신 플랫폼 빅토리아 & 엘버트 미술관

노중준의 꿈의 여행 ④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인 디자인의 나라, 스웨덴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④

칠산바다로 나아가는 거점, 영광 계마항

기생충 연구와 글로 공감시대 만든 서민 교수

대한민국 석목명인(2)

술과 함께 51년, 정성으로 익어가는 전통술 이강주 명인 조정형

트렌드 따라잡기(2)

라이프 DIY, SNS야 비법을 알려줘! 요리, 패션, 여행의 최적 콘텐츠 창조

아트 뉴스 & 리뷰

45년 연국인 박윤모의 자기고백 '인극' '동행'

밥 딜런 & 빅토르 히라, 잊질린 운명과 닮은 음악

전시리뷰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 이준석 '오월 그림전'

남도 美味樂

동학정신 새기며 즐거운 토요일로 정통삼삼, 바지락 회무침... 장남간행 탐진강을 축제, 역사재... 산전에서 '홍' 남치내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더 성숙한 2017년 준비 타이거즈 '92년 동지'들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진행 메모리 키퍼 송재영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7)

문화 화제

시행 3년 '문화가 있는 날'

드론으로 본 세상 곧 봄이 흐를까?